

박용석 개인전에 부쳐

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김인선

2017년 후반에 잡은 박용석 작가의 전시 도록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요즘 윌링앤딜링은 전시 자료의 후작업이 많은 탓에 전시 이후에 도록을 발간하는 경우가 그리 드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오래 끌고 가는 느낌이었던 것은 작가의 글과 아티스트 토크의 녹취록 점검이 오래 걸린 핑계로 도록에 들어갈 나의 글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탓으로 생긴 조바심이 더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전시의 서문이 겨우 반 정도 완성되었을 때 박용석 작가가 정리한 작가의 글이 도착했다. 압축적이면서도 명쾌하였고, 고마운 글이었다. 작성 중이던 설명문 모양새의 서문을 잠시 뒤로하고 오랜만에 개인전을 가지는 작가의 심정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많은 중년의 작가들 왈, 젊은 작가로서 주목받고 많은 기획에 참여할 기회들이 지나고 나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진다고 한다. 미술 분야에서는 유독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은 클테니까 이해하 가기도 한다. 2017년 윌링앤딜링에 유난히 40대 이상의 작가들의 전시가 많았던 한해를 보내면서, 나의 요청으로 전시를 하곤 했던 젊은 작가들과는 다르게 올해는 먼저 전시를 하고자 문의하였던 작가들에게 기회를 더 제공한 한해라는 것이 떠올랐다. 신진 작가들의 작업이 유난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즈음 윌링앤딜링의 공간에서 보여주는 중견 작가의 작품은 어떤 느낌일지 새롭게 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것 같다. 특히 박용석 작가의 경우는 내가 큐레이터로서 막일을 시작할 무렵부터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일면식은 없었으나 젊은 작가로서, 그리고 꽤 큰 전시 활동으로 이름이 꽤 많이 언급되는 작가군에 속해있었다. 그리고 2008년 개인전 이후 개인적으로 온전한 그의 작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던 차에 작년 어느날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에 대한 가능성을 문의해왔고 나는 망설이지도 않고 이 작가와의 전시를 결정하였다. 박용석 작가의 명성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10여년 만의 개인전에서 좋은 작가가 그야말로 오랜만에 좋은 작업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좋은 작업을 하는 좋은 작가 또 한명과 인연이 생겼다는 것이 즐겁다. 이번에 진행한 개인전 <당신의 기대>는, 물론 작가가 제목에서 의도한 것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나'의 기대로 출발한 전시였다.

<식물들: 자카르타 모노레일 103>은 건설 도중에 멈춰진 채로 10여년간 방치된, 도심의 나무가 되어버린 기둥 103개를 촬영한 영상이다. 모노레일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후 철거도 못한 채 10년 동안 유령처럼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모습이다. 이는 마치 도시에 심어진 가로수처럼 현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풍경처럼 당연시 되어 있었고, 외지인으로 그 도시를 방문한 박용석 작가에게는 신기한 풍경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이는 거대한 광음으로 치닫는 흥미로운 사운드와 함께 편집된 영상 작업인데 작가는 이 기둥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되기를 의도한 편집을 시도하였다. 이 영상 작업은 2015년에 제작되었고 미술전시 공간에서는 처음으로 상영되었다. 작가는 전시를 상의하기 위하여 처음 방문하였을 때 이 작품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박

수 소리를 이용하여 만든 크래핑 사운드에 그리고 사운드를 따라 바뀌는 스피디한 리듬의 시각적 속도감에 압도되었다. 10년의 세월을 점차 도시의 한 부분이 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낙서가 되어 있거나 혹은 광고판이 부착되거나 하면서 점차 그들 본연의 역할은 망각되어가고 있었다. 도시의 난개발을 꼬집는 시사성을, 그리고 도심의 모뉴먼트로서 기능하고 존재하게 된 개발현장의 잔재들을 관찰자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이 작품은 동시에 또한 미술계에서 근 20년을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항상 작가인 이들을 떠올리게 하였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때로 강렬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나의 행동을 제3자로서 바라보는 누군가가 말해줄 때, 사진에 찍힌 나를 들여다 볼 때 등은 적지않은 충격에 빠지곤 하는데, '내가 이랬구나' 혹은 '나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 일것이다. 그것은 나를 잠시 외부에 두고 핵심을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 일종의 공공적 행위일 수도 있겠다. 박용석 작가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사건을 선택하여 이를 객관화 하는 방법으로 '삭제하기'를 취하는데, 가령 <소녀상> 영상 속에서 삭제된 소녀상, <꾸밈말-어떤 하루>에서 지면 속에서 삭제된 핵심 단어들 사이에 남겨진 미사어구들 등을 통하여 스스로를 객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식이다. <소녀상>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집회에서 찍은 화면들 속에서 작가는 소녀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리고 소녀상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 자체를 목격하게 한다. 여기서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실재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개인의 차원에서 만든 모뉴먼트에 대한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귀한 풍경이기도 하다.

공공적 상징화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글'일것이다. 하지만 진짜 핵심을 말하기에는 글은 그 전달력이 분명하지는 않다. 그것은 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이 그러하리라. 가령 우리는 일상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곤 하는데 그것이 모두에게 놀랍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그것이 놀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역사적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것이고, 아무리 보편화된 상징을 사용하야도 그 미묘한 차이가 명확해지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도 생기고 입장의 온도차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작품 <문장만들기-당신이 말했잖아요>는 이를 간단 명료하게 드러낸다. 여기 저기 흩어진 단어들이 "당신이 말했잖아요, 정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것은 몸이야"로 혹은 "당신이 말했잖아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정신이야"로 읽히는, 혹은 인식되는 순간 관객은 그것이 문자화 된 것을 읽어나가는 동안 즉각적인 선택에 대하여 한번 더 시간을 들여 곱씹으며 왜 이것인지 왜 이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특정 날짜의 신문을 확대하고 핵심 단어 및 표현을 지운 상태로 남겨놓는 작품인 <꾸밈말-어떤 하루>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어떠한 사실을 인지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미사어구가 결국 핵심 내용을 지시하지는 않고 있는 동시에 그림자처럼 그 진실의 뉘앙스를 남기고 있는 여운 또한 존재하게 된다. 세상에 명확한 것은 존재할 수 없지 않기에 여러가지 꾸

میمالی 핵심을 둘러싸야지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전시장 한켠에 작가의 드로잉 <깃발_만남의 광장>이 걸려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만남의 광장에 걸려있던 풍선에 매달린 깃발을 그린 것인데 양쪽에 매달린 풍선에는 "BYE"와 "HI"라는 단어가 그려져있다. 이는 작가가 지인들에게 보내는 새해 카드에 그린 그림인데, 말하자면 '송구영신'을 뜻하는 문구이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아야겠다. '새로운 것'이 아예 모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지도 되새겨 볼 참이다. 이전에 작품을 통해 이미 돌아왔던 박용석 작가는 윌링앤딜링에서 새로운 작가임이 분명해보인다.